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서방의 사람』 - 저널리즘과 부활 -

노영숙*

The word "Journalism" is used as a generic term for popular liberal arts in *Saihonohito(The Westerner)* of Akutagawa Ryunosuke but it is used in worry about depraved arts. So, he always emphasized 'poetic spiri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of literature and pursued the fine arts that would hand the 'poetic emotion' down to posterity. Especially, "Journalism" is appeared a lot in *The sequel to Saihonohito*. Comparing with *Saihonohito* depicting the life of Jesus, *The sequel* is focused on Christ's Journalism to prove his confidence and the truth on the Resurrection that will be verified through long history after all. Furthermore, through the parable of Christ's Journalism, Akutagawa intended to prove the truth of his own works. Thus, he left a strong message about confidence on revival of his works in the end of *the sequel*(22 poor people) that after this age degenerated by pop novels and perverted naturalism, someone like 'the traveler of Emmaus' must appear to save(understand) him in the coming generation.

Key words : journalism, Saihonohito, Christ, confidence, Resurrection, poetic spirit
(저널리즘, 서방의 사람, 그리스도, 확신, 부활, 시적정신)

1. 서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이하 아쿠타가와)의 최후의 작품 『서방의 사람(西方の人)』(正, 續)은 죽음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예수의 일생으로 비유한 유서이다. 이는 예수 일생의 묘사에 집중

* 부경대학교 강사

한 37장의 정편¹⁾과, 그리스도의 복음(저널리즘)에 초점을 둔 22장의 속편으로 나뉜다.

‘붉은 감이 달린 감나무 아래 나가사키 포구가 보이는’ 일본을 향하여, 「1 이 사람을 보라」, 「속1 또 이 사람을 보라」고 거듭 호소하며, 그리스도의 일생을 ‘무참하게도 부서진 사다리’(36 그리스도의 일생)로 비유하고, ‘여우나 새가 될 수밖에 쉬이 쉴 곳을 찾을 수 없다’(37 동방의 사람)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어찌해서 너희들은 모르는가?’(속15 그리스도의 탄식)²⁾라고 탄식하며, ‘우리는 에마오의 여행자들³⁾처럼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속22 가난한 사람들에게)이라는,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처럼 아쿠타가와는 좌절과 탄식의 절절한 심경을 호소하며, ‘우리’ 즉, ‘에마오의 여행자들처럼’ 미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문예적인, 너무나도 문예적인(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에서 자신을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라고 칭하였던 아쿠타가와가, 여기에서 예수 또한 그렇게 부르며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 그리고 <시>와 관련된 시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에 관해서는 지면상 먼저 「시적 정의와 투쟁」으로 분석해 본 바 있으나,⁴⁾ 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1) 정편의 37장의 구성은 아쿠타가와 자신의 나이에 맞춘 의도적인 숫자로 추정됨. (「36 그리스도의 일생」이 줄거리의 마지막이지만, 여기에 ‘서방의 사람’에 상대한 「37 동방의 사람」을 추가한 것임)

2) 김호용 편(1977) 「마태오 16:1-4」, 「마르코 8:14-21」 『공동번역 성서』 (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芥川龍之介(1997) ‘どうしてお前たちはわからないか?’ 『続 西方の人「15クリストの歎声」』 『芥川龍之介全集 第15集』 岩波書店(이하, 『全集15』) p.284. → (속 15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간략 표기. 이하 同]

3) 김호용 편(1977) 「루카 24:13-53」 『공동번역 성서』 (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예수의 사후,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가 예수를 만나 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기록이다. 부활한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하고 말씀하셨다.’

4) 노영숙(2013.12) 「아쿠타가와와 『西方の人』론 - 시적 정의와 투쟁 -」 『동북아문화』

와 함께 무엇보다 이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널리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저널리즘>이란 말에 대하여, 세키구치 야스요시(関口安義)는 ‘저널리즘 지상주의’로까지 부르는 그리스도관은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며, <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일개의 저널리스트로 변용되었다고 하며, 나아가 저널리즘 지상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로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였다고 한다.⁵⁾

윤 일은 ‘시의 결작’(복음)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저널리스트’ <예수>의 ‘저널리즘 효과’(설교)이고, 거기에 ‘시인’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인 <예수>가 공존한다고 하며, 저널리스트인 예수의 활동은 아쿠타가와와의 문학 활동으로 바뀌어도 좋다고 하였다.⁶⁾

이러한 견해로부터 아쿠타가와와의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라는 말이 대략 이해되지만, 여기에 이 말이 나오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와 지금의 대중문화를 비교분석하였던 미타니 노리마사(三谷憲正)는, 아쿠타가와와의 저널리즘은 신문, 잡지기사와 동차원의 통속적, 현세적인 <작품>을 의미하며, ‘나의 그리스도’는 지상의 속세를 향하는 수평적 방향과, 천상을 향하는 수직적 방향을 가진 존재로서, ‘인생보다 천국을 사랑한 시인’이었던 것에 ‘저널리즘의 일면’인 ‘악마가 숨어있다’고 하였다.⁷⁾

이시와리 토오루(石割透)는 ‘예술은 시대를 넘어서 영원하다는 고전주의자적인 신념의 동요’, 이로부터 ‘아쿠타가와와의 너무나도 대정(大正)적인 예술가 의식의 붕괴’와 ‘문단의 유행작가로서 살아온 회한 섞인 자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그 배후에 ‘신문소설의 유행, 대정 중기부터의 독자층 확대, 대중 문예의 융성, 마스크의 발달 등의 「신시대」의 현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⁸⁾

연구』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381-399.

5) 関口安義(1999) 『芥川龍之介のイエス論 - 『西方の人』 『続西方の人』 -』 石割透編 『芥川龍之介作品論集成 第3巻 西方の人』 翰林書房, p.241.

6) 윤 일(2006) 『芥川龍之介の復活』 제이앤씨, pp.72-73.

7) 三谷憲正(2004) 『ジャーナリズム - 『西方の人』を中心として』 関口安義編『芥川龍之介その知的空間』『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p.234.

임훈식은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자본주의에 의한 상업저널리즘'의 대정문단의 분위기 속에, <저널리스트>는 예수가 대중에게 설교하는 모습의 비유이고, <저널리즘>은 아쿠타가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상징적 유니크한 표현으로, 대중성, 대중전달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성서와 같이, 자신의 작품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업적 성공을 원하였던 것으로 풀이하였다.⁹⁾

이와 같이, 이 작품에 빈번히 나타난 <저널리스트>, <저널리즘>이라는 말로부터, 당시의 대중적, 상업적 문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이 작품의 집필동기로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예수가 '일개의 저널리스트로 변용'되었다거나, 당시 대중문화를 배경으로 '저널리즘의 일면'인 '악마', 혹은 '예술가 의식의 붕괴'와 「신시대」의 현상을 보기도 하고, '상업적 성공'에의 희망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현상만으로는 아쿠타가와가 후대에 남긴 메시지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또한 그가 말한 <저널리즘>의 의미가 상업성의 일면으로 축소, 왜곡되어 버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저널리즘>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그가 언급하였던 작품들 속에서 찾아보고, 당시 문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작품에서의 의미와 그가 남긴 <최후의 메시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아쿠타가와와 <저널리즘>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원래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동이나 인쇄물과 통신장비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일체를 말하지만,¹⁰⁾ 그 속에는 상업성의 이면도 있다. 이 상업성의 문제는 미타니 노리마사(三谷憲正)의 조사에 의하면, 「독자 대중에

8) 石割透(2001) 『ジャーナリズム』 菊地弘 久保田芳太郎 関口安義編『芥川龍之介事典 増訂版』 明治書院、p.240.

9) 林薰植(2004.6) 『芥川龍之介におけるジャーナリズムの意味』 『日本學報』59, 한국일본학회, p.438.

10) 한국브리태니커(199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9』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p.18 참조

게 환영받는 것을 가치 기준으로 하여, 어느 곳이든 흥미본위의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 잡지를 만드는 것이 경영의 제일주의였다거나, 「저널리즘은 현대의 괴물」, 또는 「지금의 저널리즘은 일부로부터, 악마처럼, 역병처럼 저주받았다」라는 기록들을 언급하며, 아쿠타가와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에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¹¹⁾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당시 아쿠타가와와 글 속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본다.

아쿠타가와와 『문예잡담(文芸雜談)』(『文芸春秋』1927.1)에서, 월간 잡지나 신문에 게재되는 소설의 수는 일 년에 천(千)을 넘을 것이나, 소설의 생명은 짧고 서정시만큼 긴 생명을 가진 것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설은 - 필시 희곡도 상당히 저널리즘에 가까운 것이지만, 모든 문예 형식 중, 소설만큼 단명(短命)한 것도 없고, 동시에 소설만큼 통절하게 살아있는 것도 없다고 하였다.¹²⁾

이렇게 아쿠타가와와는 매일 변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저널리즘>의 속성 속에,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소설을 생명이 짧은 동시에 생활현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예형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마사무네 하쿠초의 시평(『文芸時評』中央公論』1926.1 ~ 12) 이외에 비평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비평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적어도 「시적정신의 결핍」이라는 말에는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적정신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문예의 작품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¹³⁾

이와 같이 모든 문예에 ‘시적정신’을 강조하는 그의 생각은, 그 후 『문예적인, 너무나도 문예적인』에서도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중 「10 염세주의」에서는 또다시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를 상대로 피력하고 있다.

11) 주7)전계논문 p.230, 「読者大衆に歓迎されることを価値の基準として、場当りの興味本位の記事を掲載する新聞、雑誌の経営上の第一主義」(新村出編『辞苑』博文館、1937), 「ジャーナリズムは現代の怪物である」(現代編集局編『現代新語辞典』「現代」12-11号付録、大日本雄弁会、1931), 「今やジャーナリズムは一部から、悪魔の如く、疫病の如く呪詛されている(後略)」(木村毅「序」『現代ジャーナリズム研究』公人書房、1933)

12) 芥川龍之介(1996) 『文芸雜談』『全集14』岩波書店、pp.41-42.

13) 전계주12) pp.43-44.

마사무네 하쿠초씨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인생은 언제나 압담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돈이 원수」라는 말은 봉건시대 이래의 명언이다. (중략) 그러나 또한 돈 때문이 아닌 비극이나 희극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돈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유일한 힘은 아니다.

마사무네 하쿠초씨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또한, - 나는 어쩌면 편의상 공산주의자인가 뭐가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결국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다. (중략) 그러나 한 줄 시의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보다 길다. 나는 오늘도 또한 내일처럼 「나태한 나날의 나태한 시인」, - 한사람의 몽상가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¹⁴⁾

여기에서 아쿠타가와는, 마사무네의 염세관이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작가들과는 차별되며, 그 점에서 자신 또한 다를 바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 자신은 본질적인 <저널리스트 겸 시인>으로서 '한 줄 시의 생명'을 위해 「나태한 나날의 나태한 시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상업적 통속 소설의 인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료작가들에 대한 반어(反語, 비꼼)로서, 오로지 진실한 글을 위해, 결코 상업적 작가가 되지 않겠다는 아쿠타가와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자신과 같은 염세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자들의 편에 가담하고 만 마사무네¹⁵⁾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경고였다.

또한 「20 저널리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아쿠타가와는 '문장은 말하듯이 쓰라'고 주장하는 사토 하루

14) 芥川龍之介(1997) 「十 厭世主義」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 『全集15』岩波書店、pp.165-166,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15) 佐々木雅彦(2001) 「正宗白鳥」 菊地弘 久保田芳太郎 関口安義[編] 『芥川龍之介事典増訂版』 明治書院、p.471、'のち読売新聞社に入り、美術、文芸、演劇等に関する記事、評論を書く。かたわら幻滅と虚無の心象風景を描いた小説を相次いで発表、おりしも現出した自然主義の大流にのり、その重要な位置を占める。(中略) 白鳥は芥川作品に対し必ずしも甘くはなく、多く「知恵の遊び」視しているむきがないでもない(後略)'

오(佐藤春夫)에게, '실제로 문장을 말하듯이 써보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끝도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필경 역사'이며, '모든 문예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서, 그 형태에 관계없이, 이름 없는 신문의 문예에서도 '시적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시인'을 만난 우연으로 오늘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 된 자신이 있으며, 그들 또한 저널리스트라고 하였다.¹⁶⁾

그런데 이러한 글들이 특히 마사무네와 사토에게 향하였던 것은, 당시 그들, 즉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실 묘사'라는 것이 형태 속에 갇힌 좁은 사고임을 지적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난립하던 상업적 소설들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고 말 것임을 예견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

그래서 그는 또다시 「30 야성이 부르는 소리」에서, 작가가 참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예술파」라는 이름으로 편 가르는데 개탄하며, 작품을 쓰는 이유가 '나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것'도 '현세의 사회조직을 일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속의 <시인>을 완성하기 위한 것', '혹은 <저널리스트 겸 시인>을 완성하기 위한 것'¹⁸⁾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 자신을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라 칭하며, '시적 정신'을 거듭 강조하게 된 것은, 자연주의가 지배하였던 당시 문단에서 저널리즘 문예의 확산에 따른 상업적 타락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쿠타가와가 사용하였던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모든 문예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상업성을 배격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시적 감격'으로 후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6) 芥川龍之介(1997) 「二十 ジャーナリズム」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 『全集15』岩波書店、p.178.

17) 주4)전계논문, pp.390-394 참고.

18) 芥川龍之介(1997) 「三十 野生の呼び声」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 『全集15』岩波書店、pp.203-204.

3. 『서방의 사람』의 〈저널리즘〉

아쿠타가와가 사용하였던 〈저널리즘〉이란 말을 『문예잡담』과 『문예적인, 너무나도 문예적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형태에 관계없이 ‘역사’ 대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작품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특히 『서방의 사람』(정, 속)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같은 의미로 쓰였을까. 우선 표기된 문장들을 찾아본다.

그의 천재적 저널리즘은 당연히 적을 불리왔을 것(14)
 그의 저널리즘은 서방의 고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19)
 그가 행한 일들이나 저널리즘은 바로 이 촛불의 나무(속5)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한 것은 탁월한 자신의 저널리즘(속6)
 그의 수입은 필시 저널리즘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속7)
 그의 저널리즘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실로 최고 가치(속7)
 그의 저널리즘이 언젠가 많은 독자로 인기를 누릴 것(속9)
 그의 저널리즘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속9)
 자유롭게 그의 저널리즘을 공개하였다. (속9)
 그는 저널리스트인 동시에 저널리즘 속의 인물(속13)
 그의 저널리즘이나 기적은 그에게 사람들을 모여들게(속14)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를 위로(속22)
 그의 저널리즘 속에 뭔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다.(속22)
 그의 저널리즘은 언제나 무화과처럼 감미를 가지고(속22)
저널리즘 지상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속22)

이렇게 열거해보면, 〈저널리즘〉이 한눈에 그리스도의 〈설교〉이자 곧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 서방의 고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저널리즘〉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최고의 가치를 보였고, 언젠가 승리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저널리즘 지상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설교〉이자 〈작품〉이라는 것도 선행 연구인 「시적 정의와 투쟁」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허구적 산문이 아니라 〈역설〉과 〈비유〉의 〈시〉적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서방의 사람』에는 〈시〉와 〈산문〉의 대립이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천국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 생활소재로 비유하는 〈역설의 시적 종교〉였다. (중략) 이렇게 산문과의 투쟁 속에, 〈역설〉과 〈비유〉로 진실을 설파하였던 예수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된 상황을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 아쿠타가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이 되기 쉬운 〈산문〉보다 〈시〉적 언어로서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적정신’을 또다시 강조한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이 전도(顛倒)되는 현상은 예수의 일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대정기 문단에서 상징과 알레고리의 시적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자연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아쿠타가와 자신의 입장이기도 하였다.¹⁹⁾

여기에 앞장에서 살펴본 〈저널리즘〉의 의미까지 참작하면, 『서방의 사람』에서 〈저널리즘〉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즉, 작품, 설교, 복음 등, 여러 가지 용어 대신에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소설이 생활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예형식이긴 하지만, 형태에 관계없이 〈시〉적 언어, 즉 ‘시적 정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저널리즘〉이 ‘역사’라고 하였듯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적 감각’이 오랜 ‘역사’를 거쳐 미래로 전달되는 힘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긴 역사의 심판을 통해 검증되는 〈진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쿠타가는 자신을 〈저널리스트 겸 시인〉으로 칭하며, 상업적 소설에 가담한 동료작가들에게 ‘나태한 나날의 나태한 시인’인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고,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의 〈비유〉를 통해 이 말을 빈번히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방의 사람』에서의 〈저널리즘〉의 의미를 작품의 내용과 더불어 다음의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9) 주4)전계논문 p.390.

첫째, 〈저널리즘〉은 무엇보다도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예수의 설교는 결국 율법학자나 정치가 등, 당시 권력자들의 꺾박을 받아(속16 사드카이 무리나 바리사이 무리, 속17 가야파)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가 가르친 역설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 한다(26 어린이와 같이)²⁰는 것이었고, 또한 ‘형편 좋은’ ‘귀족이나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를 위로’(속22 가난한 사람들에게)한 것이었다. 이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또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겸허한 마음이 아니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저널리즘〉은 제도나 물질에 얽매인 사람들에 대항한 것이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웃이나 아이처럼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을 위로한 것이었다. 즉 보편적 진실은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민중의 심판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

둘째, 대중에게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효과는 생활에 가까운 〈시적 비유〉에 있다.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가 필요하였을 것이나, 그 내용이 ‘천국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의 소재’로 말해야 하는 ‘역설적 종교’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 말’(관념적 산문)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 「방탕한 아들의 귀가」와 같이 ‘우리에게 절박한 것’ ‘가장 가까운 것’, 또한 ‘신부, 포도원, 당나귀, 목수’ 등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19 저널리스트)으로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게 다가갔을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이러한 시적 표현에서 저널리즘의 효과를 보았고, 위의 이야기들을 ‘시의 걸작’이라고 극찬하며, 예수를 ‘서방의 고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옛 이야기에 새로운 장작을 지피는 저널리스트’라고 불렀다.

셋째, 저널리즘에는 〈전과력〉이 있다. 아쿠타가와는 ‘그는 3일 뒤에 부활했다. 그러나 육체를 잃어버린 저 세상을 움직이기에는 한층 더 긴 세월이 필요했다.’(35 부활)고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보다, ‘말씀의 부활’로 보았다. 이러한 ‘말씀의 부활’에는 사후에 예수의 말과 행적을 전하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기

20) 주3)전게서 「루가3:11(마태18:3)」,

작가들'(속2 그의 전기 작자)의 활약이 컸고, 특히 '그리스도의 천재성을 전신으로 느꼈던 저널리스트 바울'(35 부활)의 전파가 누구보다도 힘이 되었다. 그 후에도, '그리스도 뒤에 태어난 그리스도들이 그의 적이 되는'- 수세기간의 '유전'을 거듭하면서도, 성령은 반드시 적들 중에서도 살아남았고(35 부활), 그러한 시공간을 뛰어넘는 감동의 <전파력>으로, 지금의 성서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저널리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업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아쿠타가와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수입은 필시 저널리즘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일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만큼 보헤미안이었다. 보헤미안? -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속에서 공산주의자를 보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는 어찌됐건 천재적 비약을 계속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중략) 그는 '욕기'에도 없는 아름다움을 은밀히 담아내는 솜씨가 있다. 이 솜씨는 적어도 그의 수입을 도왔을 것이다. 그의 저널리즘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실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와 비교해보면, - 실로 미국 성서회사는 신성한 것에도 매년 이익을 누리고 있다.'(속7 그리스도의 지갑)

이렇게 말한 아쿠타가와와는 물론 저널리즘의 상업적 효과를 잘 알고 있다. 사후에 미국 성서회사가 해마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신성(神聖)이 상업으로 이용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요한'조차도 '두개의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²¹⁾고 한 말을 언급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들처럼 공산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속3 공산주의자)고 하였고, 또한 <저널리즘>을 위하여 '내일의 생활도 걱정하지마라고 할 만큼 보헤미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로 벌어들이는 돈 따위보다는,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 나아가

21) 주3) 전게서, 「루가3:11」('두 벌의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마태 19:21-22」('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것에도’라고 하였듯이, 신성을 팔아먹는 상업성의 불쾌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편, 그로 인해 더욱 전 세계로 확대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다.

이상으로, 『서방의 사람』에서의 〈저널리즘〉이라는 말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그것은 부와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균중〉을 대상으로 하며, 알기 쉬운 생활의 비유, 즉 〈시적 언어〉로 감동을 주는 것이었고,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파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진실〉의 힘이였다. 또한 그 이면에는 〈상업성〉이라는 부수적 측면도 있으나 결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4. 저널리즘에 대한 〈확신〉과 〈부활〉

아쿠타가와가 사용한 〈저널리즘〉이란 말은 문예의 총칭으로써,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도 ‘시적 정신’을 강조한 것이었고,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되는 미래의 결과까지도 포괄하는 통시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장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속편에 집중적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수의 일생을 보여주는 정편과는 달리, 속편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부활〉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22장의 속편의 구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서두(속1)를 제외하면, - 복음을 전파한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등 4복음서(속2)의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특성들(속3~속7)이 각각 나열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저널리즘〉 활동에 대한 확신과 탄식(속8~속15)이 이어지고, 그것이 박해자들로부터 받는 수난과 예수의 죽음(속16~속21)이 열거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부활〉의 메시지(속22)로 마감되었다.²²⁾

22) 1장(속1)또다시 이 사람을 보라), 2장(속2)그의 전기 작가), 3~7장(속3)공산주의, 속4)무저항주의자, 속5)생활자, 속6)저널리즘 지상주의자, 속7)그리스도의 지갑), 8~15장(속8)한때의 마리아, 속9)그리스도의 확신, 속10)요한의 말, 속11)한때의 그리스도, 속12)최대의 모순, 속13)그리스도의 말, 속14)孤身, 속15)그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속편의 구성은 결국 그것에 대한 〈확신〉과 〈부활〉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확신〉과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저널리즘이 언젠가 많은 독자에게 인기를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저널리즘에 위력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또한 최후의 심판의 - 즉 그의 저널리즘이 승리할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중략) 이 확신은 사실이 된 것이지만, 물론 그의 허영심이다. 그리스도도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초바보의 한사람이었다. 만약 초인이라는 말에 대해 초바보라는 말을 만든다면, …… (속9 그리스도의 확신)

이처럼, 언젠가의 ‘최후의 심판’에서 ‘저널리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사실이 되었지만, 물론 ‘허영심’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허영심’이라고 한 것은, 확신에 대한 불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초바보’라고 할 만큼, 현실의 모든 욕망을 포기할 정도로 확신하였다는 말이며, 자신만의 확신임을 외려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래서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초바보’는 ‘초인’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저널리즘 이상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언젠가 실현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린다. 다음 문장은 이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를 위로하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천국 따위에 가려고 생각지 않는 귀족이나 부자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은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다. 우리들도 그의 저널리즘 속에 뭔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다. (중략) 그의 일생은 언제나 우리들을 감동시킬

스도의 탄식), 16~21장(속16사드카이파와 바리사이파, 속17가야파, 속18두사람의 도둑들, 속19병졸들, 속20수난, 속21문화적인 그리스도), 22장(속22 가난한 사람들에게)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 저널리즘 지상주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중략) 우리들은 에마오의 여행자들처럼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속22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저널리즘 지상주의'를 외치는 마지막 장은, 특히 '우리들은 에마오의 여행자들처럼'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어조의 문장으로 끝을 맺는데, 이는 '에마오의 여행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았듯이, 후대의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 어둠 속에 묻힌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이라는 강렬한 <부활>의 메시지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복음·<저널리즘>이며, 나아가 이 말은 아쿠타가와 자신의 문학임을 암시한다. 또한 이 메시지는 천국 따위는 관심도 없을 부자나 특권층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것으로서, 특히 이 말 속에는 당시 자연주의자들이 장악한 상업적 문단에 대한 깊은 저항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속편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핵심어로서,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확신>과 <부활>을 통해 아쿠타가와와 자신의 문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상으로 종합해 볼 때, 『속서방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것이 수세기간의 박해 속에서도 결국 민중의 심판으로 살아나게 되는 <진실>의 힘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자연주의가 장악하였던 당시 문단에서 폄하되었던 자신의 문학의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어있다.

5. <부활>의 의미와 비평

아쿠타가와와 자신의 문학에 대한 비평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만큼, 많은 모순의 칭송과 비난(毀譽褒貶)을 받았던 문학가는 없다'고 하였던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말처럼,²³⁾ 양극의 평가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삶은 선과 악, 이상과 현실 등, 이율배반의 조건 위에 서 있고, 그러기에 그것을 반영하는 예술 또한 사실적 묘사로는 한계가 있다. ‘초월성의 구체화’의 문제에서 ‘알레고리의 효력’을 언급하였던 루카치(Georg Lukacs)나,²⁴⁾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사이에서 ‘알레고리에 대한 선호’가 벤야민의 ‘변함없는 취향’이었다고 한 진중권의 말처럼,²⁵⁾ 이율배반의 표현은 ‘파편적인 것’들의 ‘알레고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고리적 표현으로 구성된 아쿠타가와류의 문학은, 기쿠치 칸(菊地完)이 ‘은핀셋으로 집어낸다’고 하였듯이 정곡을 찌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앞장에서 〈저널리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임훈식은, 아쿠타가와류는 ‘예술의 창작에 있어 상상력의 중요성’을, 예수의 부활을 이용하여 말하였다고 하며,²⁶⁾ ‘사후의 부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의 문학에 대한 불신감 속에 “정신의 부활”에의 희망’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속 7 그리스도의 지갑」에서의 성서의 판매처럼 자신의 저서 판매로 최고의 수입을 바라는 작가의 얼굴이 숨어있다고 하면서, 「속 9 그리스도의 확신」에서 말하였던 사후의 확신으로부터 ‘결국 아쿠타가와도 자신의 작품이 호평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판매 호조와 같은, 상업적 성공을 원하였던 것’이며, 이는 ‘저널리즘의 또 하나의 속성인 상업성의 문제’²⁷⁾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23) 萩原朔太郎(1975) 「芥川龍之介の小断想」 『新装版文芸読本 芥川龍之介』 河出書房新社、p.10.

24)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옮김(2002) 「제13장 예술의 해방 『2. 알레고리와 상징』」 『루카치 미학』제4권, 미술문화, ‘알레고리적 효력’, ‘미학적으로 보면, 장식적으로 형상화된 연관관계들의 고유한 가치만이 중요하며, 또 이 연관관계들이 그 자체의 힘만으로, 비록 약화되고 불충분하긴 하지만 미적인 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p.156, ‘초월성의 구체화’ p.160.

25) 진중권(2013.8)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탈근대화의 관점으로 읽는 현대미학』 아트북스, p.60 참고.

26) 林薰植(2001.9) 「芥川龍之介の復活觀」 『日本學報』48, 한국일본학회, pp.201-202.

27) 주9) 전계논문, pp.436-438.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부활〉의 메시지에는 조금도 불신감은 볼 수 없었다. 또한 〈저널리즘〉의 상업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쿠타가와는 인간의 고통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희비극이 있음을 언급하였고,²⁸⁾ '보헤미안'이며 '공산주의적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였던 예수처럼, 그 자신 또한 상업적 성공은 관심 밖이었다. 더구나 이 작품을 집필하던 그 시점은 죽음을 앞둔, 그래서 이미 돈 문제는 초월한 상태였다. 아쿠타가와는 단지 자신의 글이 오늘의 성서처럼 제대로 읽혀지기를 바랐고, '엠마오의 여행자처럼' 언젠가 후대의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 자신의 〈문학〉을 알아볼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 아쿠타가와와 〈부활〉에의 확신은 예수의 시적 〈저널리즘〉이 오늘날 전 세계에 읽혀지듯이, 마찬가지로 역설과 비유가 많았던 자신의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랑이며,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다.

또한 조사옥은, 아쿠타가와와 '죄의식'과 '패배의식'이 「광인의 딸」²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그의 자결을 『서방의 사람』의 저널리즘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부르며 '부활'의 기대 속에 '평화'로운 '잠'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풀이하였고,³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그의 道」, 저널리즘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달리, 아쿠타가와는 여자관계로 인한 「과거생활을 총결산」하기 위해 자결하려 했으며, '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도둑」이었다'라는 결론으로까지 비약하였다.

「秀부인과 죄를 범한 일」로, 아쿠타가와를 자신을 「법률상의 죄인」으로 규정하고, 「과거생활을 총결산」하기 위해 자결하려

28) 芥川龍之介(1997) 「十 厭世主義」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 『全集15』岩波書店、pp.165-166. 'しかし又金の為に起らずにゐる悲劇や喜劇もない訳ではない。のみならず金は必ずしも我々人間を翻弄する唯一の力ではないのである。'

29) 芥川龍之介(1997) 「狂人の娘」: 『齒車』 『全集15』岩波書店、p.64. 『或阿呆の一生』 『全集16』岩波書店、pp.48-49.

30) 曹紗玉(2000.12) 「芥川龍之介の『西方の人』考」 『日本學報』45, 한국일본학회, pp.489-491.

고 했다. 자신은 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도둑, 이었다. 같은 십자가에 걸렸다고 해도 아쿠타가와 자신은 「과거생활」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道」, 저널리즘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쿠타가와는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신앙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하였던 것은 아닐까.³¹⁾

이러한 결론은 아쿠타가와와의 『암중문답(暗中間答)』(『文芸春秋』 1927.9)과 친구 오아나 류이치(小穴隆一)에게 보낸 『유서(遺書)』³²⁾로부터 추론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인용한 말들은 전체적 내용의 극히 일부, 어쩌면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다. 우선 아쿠타가와는 『유서』에서, 「秀부인과 죄를 범한 일」을 언급하면서도 ‘나는 죄를 범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거니와, ‘나(僕)’와 ‘어떤 목소리(或聲)’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진 『암중문답』에서도, 내용의 대부분이 여자 문제가 아니라, 연애, 돈, 가족, 죽음, 예술, 등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조금도 숨기지 않는 〈이율배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암중문답』에서 ‘한 여인’을 언급하며 스스로 ‘법률상의 죄인이 아닌가’ 하고 되물었던 것은, 그러한 여자관계가 법률적으로 부도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학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만큼 거짓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쿠타가와와의 사생활은 그의 결벽한 성정(性情)만큼 당시 동료작가들에 비하면 깨끗한 편이었고, 생활태도 또한 매우 예의바

31) 曹紗玉(2001.12) 「芥川龍之介の『遺書』考」『日本學報』49, 한국일본학회, p.478. 「秀夫人と罪を犯したこと」で芥川は自分を「法律上の罪人」と規定し、「過去の生活を総決算」するために自死をしようとした。自分はまさに、キリストと一緒に十字架に掛けられた「盗人」であった。同じ十字架に付けられているといっても芥川自身は「過去の生活」の報いを受けているのだが、キリストは「彼の道」、ジャーナリズムを語ったためである。しかし芥川は「わたしのキリスト」を告白することにより、その「信仰の為に必ず天国にはひる」という約束を受けたいと願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32) 芥川龍之介(1998) 『遺書』『全集23』岩波書店, p.84. ‘僕等人間は一事件の為に容易に自殺などするものではない。僕は過去の生活の総決算の為に自殺するのである。しかしその中でも大事件だったのは僕が二十九歳の時に秀夫人と罪を犯したことである。’

르고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³⁾ 게다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도리 없는 악인’이라고 책망하는 천사(자신의 양심)에게, ‘나는 오히려 선한 남자’³⁴⁾라고 대답하고 있듯이, 지금보다 더 남성 중심적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한사람의 여자 문제로 자결할 만큼 병적 수준의 순결주의자도 아니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해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이었으므로, ‘도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암중문답』은 ‘나’와 ‘나의 마음(천사 또는 악마)’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그만큼 거짓 없는 자신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속에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을 스스로 ‘모순투성이의 사상’이라고 하며, 이를 ‘진보한 증거’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사실 묘사’만을 주장하던 자연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이었다. 그래서 ‘바보는 언제까지나 태양은 대야보다도 작다고 생각 한다’며, 그들의 좁은 시각을 비판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아쿠타가와와의 말은 이미 자연주의로부터 탈 근대화하여 모더니즘을 거쳐 초현실주의가 보편화된 오늘의 역사가 증명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본 작품인 『서방의 사람』에는 그러한 여자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정편의 대부분은 예수의 일생에 관한 것이고, 속편은 예수의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이다. 자신을 예수의 일생으로 비유한 이 작품에서, ‘인생보다 천국을 중히 여긴 시인’

33) 萩原朔太郎(1964) 『芥川龍之介の死』 『近代作家研究アルバム 芥川龍之介』 筑摩書房、p.263、‘そもそもこの『理知の人』であり、洗練された『礼節の人』である。’ 菊池寛(1964) 『芥川の事ども』 『近代作家研究アルバム 芥川龍之介』 筑摩書房、‘彼の潔癖性’、‘あの『女人云々』について、(中略)奇怪な妄説をなすものがあつたが、さう云ふ妄説を信ずる者には、いつでも自分宛の遺書を一見させてもいいと思つている。’ p.292、‘皮肉で聡明ではあつたが、実生活にはモラリストであり、親切であつた。彼が、もつと悪人であつてくれたら、あんな下らないことに拘泥はらないで、はればれと生きて行つたらうと思ふ。’ p.295.

34) 芥川龍之介(1997) 『暗中間答』 『全集16』 岩波書店、p.13、‘或声：お前は仕かたのない悪人だ。僕：僕は寧ろ善男子だ。若し悪人だつたとすれば、僕のやうに苦しみはしない。のみならず必ず恋愛を利用し、女から金を絞るだらう。’

35) 전개주 34) p.12、‘或声：お前には思想と云ふものはない。偶々あるのは矛盾だらけの思想だ。僕：それは僕の進歩する証拠だ。阿呆はいつまでも太陽は盥よりも小さいと思つている。’

(28)이었던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에(36)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이 전부’(속8)였으며, ‘저널리즘 지상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속22)고 하였다. 그러한 예수처럼, 아쿠타가와도 자연주의자들이 장악하였던 상업적 문단을 비판하며 자신의 일이었던 문학의 <진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끝에 죽음까지도 불사하였다.³⁶⁾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내용이 예수와 자신의 <저널리즘>(문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작품을 여자관계의 결과로 끝아가는 것은 작품의 본질을 한참 벗어난다.

더욱이 조사옥은, <결국 아쿠타가와는 ‘秀부인’과 죄를 범한, ‘광인의 아들’이며, ‘인생의 싸움’에 패배한, 「속 22」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임을 작품과 「유서」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³⁷⁾라고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 「산상수훈」의 ‘가난한 사람’을, ‘秀부인’과의 죄와 ‘광인의 아들’로서의 인생의 패배자로 풀이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본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성서나 「속 22」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패배자가 아니라, 부자나 권력자로부터 설움을 받는 약자이며, 제도와 물질에 구속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물론 아쿠타가와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자와의 죄로 인한 패배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아쿠타가와와 그의 작품은 이성과 도덕으로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이율배반>을 기조로 하므로, 알레고리로 나타나는 그의 역설적 표현은 작품 이해에 많은 오해를 발생시켰다. 더구나 『서방의 사람』은 그의 인생과 문학 전체가 종합적으로 비유된 것이므로, 하나의 단어나 단편적 사실만으로 유추하거나, 작가에 대한 선입견으로 흘러서는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체적 작품정신에 충실해야 하고, 또한 사후에야 인정받는 작가도 있듯이, 작가의 ‘인생’(작가론)과 ‘문학’(작품론)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자살은

36) 주4)전계논문, pp.381-399.

37) 주31)전계논문, p.476. ‘結局芥川は、「秀夫人」と罪を犯し、「氣違ひの子」であり、「人生の戦ひ」に敗れた、「続西方の人」22で言う「貧しい人」であることを作品と「遺書」の中で告白しているのである。’

승리에 의한 자살이지, 패배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고 하였던 하기 와라의 말처럼,³⁸⁾ 『서방의 사람』은 현실적 '인생'(마리아)의 패배가 아니라, 그 희생 위에 세워진 '문학'(성령)의 승리이다.

6. 결 론

〈저널리즘〉이란 말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모든 문예의 총칭으로 상업성의 이면을 지닌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와 작품에서는, 이 말이 대중문예의 상업적 타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문예의 형태에 관계없이 '시적정신'을 강조하였고, 그 '시적 감격'이 후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는 〈저널리즘〉과 〈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고, 자신과 예수를 〈저널리스트 겸 시인〉이라고 한 이유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은 특히 『속 서방의 사람』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수 일생의 묘사에 집중한 정편과는 달리, 속편은 그리스도의 〈저널리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확신〉과 〈부활〉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의 〈저널리즘〉은, 부와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균형을 대상으로 하여, 알기 쉬운 생활의 비유, 즉 시적 언어로 감동을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파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진실〉의 힘이었다. 이는 결국 긴 '역사'를 통해 검증되는 〈진실〉을 말하며, 나아가 당시 자연주의와 상업적 통속소설의 대유행 속에서 폄하되었던 아쿠타가와 자신의 문학에 대한 〈진실〉과 〈부활〉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아쿠타가와 최후의 작품 『서방의 사람』(정, 속)은 성서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전하듯, 이러한 예수의 〈비유〉를 통해 아쿠타가와 자신의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특히 속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장, '우리는 에마오의 여행자들³⁹⁾처럼

38) 萩原朔太郎(1964)「芥川龍之介の死」『近代作家研究アルバム 芥川龍之介』筑摩書房, p.272.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我々はエマヲの旅びとたちのやうに我々の心を燃え上らせるクリストを求めずにはゐられないのであらう)'(속22)이라는 말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에마오의 여행자들'처럼, 반드시 후대의 '우리'가 아쿠타가와 문학의 <진실>을 알아볼 것이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였다. 그래서 성서가 전 세계에서 읽혀지듯이, 자신의 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랑을 갈구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것은, 자연주의자들이 장악하였던 상업적 문단에 대한 깊은 저항의 뜻이었고,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순수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아쿠타가와 자신의 문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서방의 사람』은 자연주의가 지배하였던 문단의 한복판을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탈근대화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한 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초현실주의가 보편화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쿠타가와 문학에 대한 그때의 오해와 편견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에 '어찌해서 너희들은 모르는가?' 라고 탄식하며, 후대의 '우리'에게 남긴 <부활>의 메시지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참고문헌

<텍스트>

김호용 편(1977) 『공동번역 성서』 (카톨릭용)대한성서공회.

芥川龍之介(1996~8) 『芥川龍之介全集』 岩波書店.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옮김(2002) 『루카치 미학』 제4권, 미술문화, pp.156-160.

노영숙(2013.12) 『아쿠타가와와 『西方の人』론 - 시적 정의와 투쟁 -』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381-399.

윤 일(2006.5) 『芥川龍之介의復活』 제이앤씨, pp.72-73.

林薰植(2001.9) 『芥川龍之介의復活觀』 『日本學報』 48, 한국일본학회, pp.201-202.

_____ (2004.6) 『芥川龍之介におけるジャーナリズムの意味』 『日本學報』 59, 한국일본학회, pp.436-438.

- 曹紗玉(2000.12) 「芥川龍之介の『西方の人』考」 『日本學報』45, 한국일본학회, pp.489-491.
- _____ (2001.12) 「芥川龍之介の『遺書』考」 『日本學報』49, 한국일본학회, p.478.
- 진중권(2013.8)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탈근대화의 관점으로 읽는 현대미학』 아트북스, p.60.
- 한국브리태니커(199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9』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p.18.
- 石割透(2001) 「ジャーナリズム」 菊地弘 久保田芳太郎 関口安義編『芥川龍之介事典増訂版』 明治書院、p.240.
- 菊池寛(1964) 「芥川の事ども」 『近代作家研究アルバム 芥川龍之介』 筑摩書房、pp.292-295.
- 佐々木雅彦(2001) 「正宗白鳥」 菊地弘 久保田芳太郎 関口安義編『芥川龍之介事典増訂版』 明治書院、p.471.
- 関口安義(1999) 「芥川龍之介のイエス論 - 『西方の人』 『続西方の人』 -」 石割透編『芥川龍之介作品論集成 第3巻 西方の人』 翰林書房、p.241.
- 萩原朔太郎(1975) 「芥川龍之介の小断想」 『新装版文芸読本 芥川龍之介』 河出書房新社、p.10.
- _____ (1964) 「芥川龍之介の死」 『近代作家研究アルバム 芥川龍之介』 筑摩書房、pp.263-272.
- 三谷憲正(2004) 「ジャーナリズム - 『西方の人』 を中心として」 関口安義編『芥川龍之介その知的空間』 『国文学解釈と鑑賞』 別冊、至文堂、pp.230-234.

성 명(한 글) : 노 영 숙

(한 자) : 盧 營 淑

(영 문) : Noh, Young-Sook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Akutagawa Ryunosuke's *Saihonohito*
- Journalism and Resurrection -

소 속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E-mail : nysook59@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3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